

고려 태조~현종 대 왕실의 혼인 네트워크와 지배층의 형성*

李炫珠 · 文誠敏 · 李相國**

I. 머리말	III. 혜종~현종 대 중층적 혼인 네트워크와 지배층의 형성
II. 태조 대 혼인 네트워크와 지배층의 부상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라말 지역 세력[호족]이 고려의 지배층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왕실의 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기존의 국가권력과 지역 세력이라는 이항 대립적 관점에서 벗어나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지배층의 연속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고려 지배층의 형성과정을 고려 태조~현종 대에 이르는 왕실의 혼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태조 대에 형성된 왕실의 혼인 네트워크는 후대 왕인 혜종~현종 대에도 지역 세력이 지배층으로 성장해가는 데 주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이 시기 왕실 혼인은 족외혼에서 족내혼으로, 이어서 족내혼과 족외혼이 혼합된 형태로 변화했다. 이 과정에서 왕실 혼인은 족외혼을 통해 권력의 외연을 확장하고, 족내혼을 통해 권력의 내연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후비의 칭성 사례는 이러한 왕실 혼인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요컨대 태조~현종 대 왕실의 혼인 네트워크는 왕실과 지역 세력을 연결하는 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6078031).

** 아주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제1저자 · 아주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제2저자 · 아주대 사학과 교수, 교신저자.

개이며 지배층으로 유입하는 기반이었고, 권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수단이었다.

왕실 혼인을 통해 성장한 지배층은 그들이 성취한 정치·사회·경제적 지위를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만 했다. 고려의 지배층은 이전 시기보다 더 치열하게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했다. 이러한 경쟁에서는 성공한 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으로 나뉘 수밖에 없다. 그들의 성공 전략을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향후 연구 과제이다. 본 연구는 그 시발점이다.

주제어 : 왕실 혼인, 혼인 네트워크, 지역 세력, 후비의 칭성, 칭외성, 족내혼, 족외혼, 지배층의 형성, 권력 재생산

I. 머리말

918년 고려의 건국은 단순히 왕조 교체를 넘어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한국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¹⁾ 특히 새로운 권력층과 기존 지역 유력자 간의 길항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새로운 지배층의 존재 양상에 대해서는, 그들이 고려시대의 주요한 지배 세력으로 군림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그 영향력을 발휘해왔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연구자들은 고려 초기 건국 과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시기 지배층의 존재 양상과 권력관계를 조명해왔다.²⁾ 나말여초 시기 정치 사회적 주도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는데,³⁾ ‘호족연합정권설’⁴⁾이 주도적인 이해로 자리

-
- 1) 한국사의 시대구분 중 중세의 시점과 관련해 여러 방면에서 조명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사에서 중세의 시점에 대해서는 첫째 7세기, 둘째 나말여초, 셋째 고려 건국기, 넷째 여말선초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 2) 黃善榮, 『高麗初期 王權研究』, 東亞大學校出版部, 1988; 김갑동, 『고려전기 정치사』, 일지사, 2005; 『고려 태조 왕건정권 연구』, 해안, 2021;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해안, 2014.
 - 3) 旗田巍가 ‘豪族’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이후, 나말여초의 ‘호족’의 성격과 역할을 주목한 연구가 이어졌다(「高麗王朝成立期の土豪と族團」, 1957; 「高麗王朝成立期の「府」と豪族」, 『法制史研究』 10, 法制史学会, 1960;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部, 1972). 그는 호족은 신라 말의 혈연적 同姓村落인 村落의 首長인 村主 출신으로 파악하였다. 旗田巍의 연구 이후, 호족은 신라의 골품제 사회를 붕괴시키고, 후삼국시대를 거쳐 고려가 건국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인식되었다(한국역사연구회, 「나말여초 호족의 연구동향-196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 1990). 이후 김철준과 이기백의 일련의 연구를 통해 골품제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호족과 육두품의 대두, 이들이 고려의 집권화 과정을 거치면서 문벌귀족 또는 향리로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심화하였고, 이는 고려 중세 사회론으로 정리되었다(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金哲峻,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호족 관련 연구사는 蔡雄錫,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1~14면 참조).
 - 4) 李基白, 「高麗 貴族社會의 成立의 概要」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4; 河炫綱, 「高麗 王朝의 成立과 豪族聯合政權」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7; 申虎澈, 「後三國時代 豪族聯合政治」, 『韓國史上의 政治形態』(翰林科學院 叢書18), 一潮閣, 1993. 호족과 ‘호족연합정권설’에 관한 연구사는 이순근, 「羅末麗初 『豪族』 용어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論文集』 19, 성심여자대학교, 1987; 崔圭成, 「豪族聯合政權說에 對한 研究史的 檢討」, 『國史館論叢』 78, 국사편찬위원회, 1997; 윤경진, 「고려초기의 정치체제와 호족연합정권설」, 『한국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2002; 신호철, 『후삼국시대 호족연구』, 개신, 2002.

잡은 상황에서 그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장도 끈질기게 이어져 왔다.⁵⁾ 고려 건국기 지배 세력의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는 국가권력 우위론과 지역 세력 할거론의 두 관점으로 나뉘어 있다.⁶⁾ 이에 따라 지역지배의 방식에 관해서도 전자는 중앙권력의 직접 지배로,⁷⁾ 후자는 중앙권력이 지역 세력을 매개로 한 간접 지배로 보아⁸⁾ 분명한 인식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양 연구 진영 간 활발한 논쟁이 이어졌으며 고려 건국기 지배층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다.⁹⁾

기존 연구에서는 이점에 대해 태조의 대 호족 정책, 특히 사성 정책이나 혼인 정책에 주목했다.¹⁰⁾ 그렇지만 국가권력[왕권]과 지역 세력[호족]이라는 이항 대립적 관점에서 태조의 대 호족 정책 등을 고찰했기 때문에 두 세력 간의 상호작용이나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지배층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시대적 전환기인 나말여초기에 지역 세력[호족]¹¹⁾이 고려의 지배층으로 어떻게 전환해갔는지에

-
- 5) 朴菴熙, 「高麗初期 豪族聯合政權說에 대한 檢討-『歸附』豪族의 정치적 성격を 중심으로」, 『韓國史의 視覺』, 永信文化史, 1984; 嚴成鎔, 「高麗初期王權과 地方豪族의 身分變化: 『豪族聯合政權』說에 대한 檢討」,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1986; 김갑동, 『나말여초의 호족과 사회변동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 6) 具山祐, 「高麗前期 鄉村支配體制 연구의 현황과 방향」, 『釜大史學』 23, 釜山大學校史學會, 1999, 26~27면.
 - 7) 박창희, 앞의 논문; 엄성용, 앞의 논문.
 - 8) 李基白, 「新羅私兵考」, 『歷史學報』 9, 역사학회, 1957; 「고려 地方制度의 整備와 州縣軍의 成立」, 『曉城趙明基博士華甲紀念佛敎史學論叢』, 1965;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재수록; 河炫綱, 「高麗地方制度의 研究」, 『韓國研究叢書』 32, 韓國研究院, 1977;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1988 재수록; 김아네스, 「고려 태조대 귀부호족과 本邑將軍」, 『震檀學報』 92, 震檀學會, 2001.
 - 9) 金光洙, 「羅末麗初의 豪族과 官班」, 『韓國史研究』 23, 韓國史研究會, 1979; 李純根, 「羅末麗初 地方勢力의 構成形態에 관한 一研究」, 『韓國史研究』 67, 韓國史研究會, 1989; 김갑동, 앞의 책, 1990; 鄭淸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蔡雄錫, 앞의 책, 2000; 신호철, 앞의 책, 2002.
 - 10) 관련 연구사는 주 13)~주 15) 참고. 본 연구에서는 태조 대의 혼인 정책을 고려 전기 왕실 혼인 네트워크의 성립과 지배층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 11) 기존의 연구에서 '호족' 내지 '호족연합정권'과 같은 용어의 개념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朴菴熙, 앞의 1984 논문; 李純根, 「羅末麗初 『豪族』 용어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 『論文集』 19, 1987; 김갑동, 앞의 1990 책; 「나말여초 호족의 연구동향-1960년대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 1991; 신호철, 「後三國時代 豪族聯合政治」, 『韓國史상의 政治形態』, 翰林科學院 叢書18, 一潮閣, 1993). 본 논문에서는 지역 유력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임의 상 '호족'을 사용하였는데, 본 논문에서의 호족은 '지역'을 지지기반으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유력세력을 일컫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첫 번째, 신라 말 지역세력이 고려 초의 중앙지배층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즉 신라 말 지역 세력이 어떤 계기나 매개 고리에 의해 국가권력[왕권] 내로 편재되는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 국가/권력[왕권]은 신라 말 지역 세력[호족]을 어떤 방식으로 포섭하는가. 즉 고려 초의 국가는 영역지배를 어떤 방식으로 관철시키는가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 태조~현종 대의 지역 세력들이 중앙지배층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왕실과 지배층, 그리고 지배층 간의 혼인 네트워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¹²⁾ 우선 태조의 혼인 정책을 통해 왕실과 지역 세력이 결합하며 혼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을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태조 대에 형성된 혼인 네트워크가 혜종~현종 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고려 초 왕실의 혼인 네트워크와 지역 세력의 지배층화 과정을 밝히고, 고려 지배층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태조 대 혼인 네트워크와 지배층의 부상

고려 태조 왕건은 건국 과정에서 여러 세력과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역 세력[호족]과의 혼인이었다. 고려 태조는 각 지역의 유력자들을 망라하여 혼인 관계를 맺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태조의 혼인목적에 대해서 국가권력 우위론과 지역 세력 할거론이라는 두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우선 국가권력 우위론의 입장에서 태조의 혼인을 호족과의 연합을 위한 전략으로 이해하였다.¹³⁾ 태조가 건국 초기에 유력 지역 세력들과 정책적으로

12) 이 글의 연구 대상 시기는 고려의 왕실 혼인의 전형이 확립된 시기인 태조~현종 대를 대상으로 한다.

13) 李基白, 「王建」, 『韓國의 人間像』 2, 新丘文化社, 1965; 『高麗貴族社會의 形成』, 一潮閣, 1990; 江原正昭, 「高麗王族の成立—特に太祖の婚姻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 朝鮮史研究會, 1966; 李熙永, 「高麗朝歷代妃嬪の姓の繼承に關する一試論—同姓不婚制の形成過程における一現狀の究明—」, 『民族學研究』 31, 日本民族學會, 1966; 河炫綱, 「高麗前期의 王室婚姻에 對하여」, 『梨大史苑』 7, 梨大史學會, 1968; 앞의 책, 1988 재수록: 尹庚子, 「高麗王室의 婚姻形態」,

혼인하였고, 이는 왕조를 개척한 초반기 왕건의 권력을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지역 세력 할거론의 입장에서 태조의 혼인을 자신이 신뢰하던 무장들과 관료들을 대상으로 妃父를 선정하여 정치적 기반을 강화해 나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¹⁴⁾ 후비의 연고지가 통일 전 고려 지역이 가장 많았고, 태조의 妃父가 대부분 중앙에서 태조의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태조의 의도에 의한 정략혼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¹⁵⁾ 관련 연구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려 건국기 29명의 후비와 혼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며, 이후 역사적 전개 과정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고려 태조와 지역 세력 간 혼인 관계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표 1>을 보자.

<표 1> 태조 후비 일람표

왕	후비명	성씨	출신	후비부	후비부직위	자녀
태조	1 신혜왕후	유(柳)	정주	유천궁	삼중대광	
	2 장화왕후	오	나주	오다련군		혜종
	3 신명순성왕태후	유(劉)	충주	유궁달	증태사내사령	왕태, 정종, 광종, 문원대왕왕정, 증통국사, 낙랑공주, 흥방공주
	4 신정왕태후	황보	황주	황보제공	삼중대광	대종, 대목왕후

『淑大史論』 3,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1968; 鄭容淑, 「高麗初期 婚姻政策의 추이와 王室族內婚의 성립」, 『韓國學報』 37, 韓國研究學會, 1984; 「公主의 婚姻關係를 통해 본 高麗王室婚의 一斷面」,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1986; 『高麗王室族內婚研究』, 새문社, 1988 재수록; 『고려시대의 후妃』, 민음社, 1992.

14) 權眞澈, 「高麗太祖의 后妃策에 關한 再考」, 『白山學報』 47, 1996, 166~169면.

15) 엄성용은 ‘호족연합정권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근거 중 하나로 태조의 혼인 정책을 살펴보았다. 즉 후비의 연고지를 알 수 있는 26명을 조사한 결과 고려의 11개 지역에서 18명, 후백제의 2개 지역에서 2명, 신라의 4개 지역에서 6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려 출신 호족이 다른 지역 출신 호족보다 태조와 혼인 관계를 맺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한 가문에서 2, 3명의 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태조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태조의 妃父 등 대부분이 중앙에서 태조의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로 보아 이는 태조의 의도에 의한 정략결혼이 아니라 중앙으로 진출한 호족이 중앙에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왕실과의 통혼을 원했다고 보았다(앞의 1986 논문, 48~51면).

고려 태조~현종 대 왕실의 혼인 네트워크와 지배층의 형성

5	신성왕태후	김	신라인	김억렴	잡간	안종
6	정덕왕후	유(柳)	정주	유덕영	시중	왕위군,인애군,원장태자,조이군,문혜왕후,선의왕후,공주1
7	현목대부인	평	경주	평준	좌윤	수명태자
8	정목부인	왕	명주	왕경	태사삼중대광	순안왕대비
9	동양원부인	유(庾)	평주	유금필	태사삼중대광	효목태자왕의,효태자
10	숙목부인	임	진주	임명필	대광	원녕태자
11	천안부원부인	임		임언	태수	효성태자왕임주,효지태자
12	홍복원부인	홍	홍주	홍규	삼중대광	태자왕직,공주1
13	후대량원부인	이	합주	이원	대광	
14	대명주원부인	왕		왕예	내사령	
15	광주원부인	왕	광주	왕규	대광	
16	소광주원부인	왕		왕규	대광	광주원군
17	동산원부인	박	승주	박영규	삼중대광	
18	예회부인	왕	춘주	왕유	대광	
19	대서원부인	김	동주	김행파	대광	
20	소서원부인	김	동주	김행파	대광	
21	서전원부인		미상	미상		
22	신주원부인	강	신주	강기주	아찬	아들1, (광종)
23	월화원부인		미상	영장	대광	
24	소황주원부인		미상	순행	원보	
25	성무부인	박	평주	박지윤	삼중대광	효제태자,효명태자,법등군,자리군,공주1
26	의성부원부인	홍	의성부	홍유(홍술)	태사삼중대광	의성부원대군
27	월경원부인	박	평주	박수문	태위삼중대광	
28	몽양원부인	박	평주	박수경	태사삼중대광	
29	해량원부인		해평	선필	대광	

출전 : 『高麗史』 「后妃傳」

〈표 1〉은 『高麗史』 후비전에 수록된 태조 왕건의 후비 일람표이다. 제1비~제6비는 고려 태조의 정실부인으로서 왕후의 명칭이 부여되었고, 제7비~제29비에게는 부인의 명칭이 주어졌다.¹⁶⁾ 후비의 기재 순서는 대체로 혼인 순서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

다. 혼인의 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태조가 사망한 943년까지의 태조의 혼인은 그 시기에 따라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I 시기는 후고구려의 장군 시기 917년까지인데, 제1비인 신혜왕후 유씨와 제2비인 장화왕후 오씨와 혼인했다. II 시기는 고려의 왕으로 즉위한 후 후삼국 통일까지의 시기로, 918년부터 935년까지이다.¹⁷⁾ III 시기는 후백제의 견훤이 고려로 투항하고, 신라의 경순왕이 귀부한 시점인 935년부터 943년까지이다. 대체로 II 시기, 즉 태조가 왕으로 즉위한 직후부터 후삼국을 통일한 시점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¹⁸⁾

태조의 혼인 양상에 대해서는 후비들의 칭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태조 후비 대부분의 명칭은 ‘지역’과 ‘院夫人’ 형식으로 나타나 있다.¹⁹⁾ 제7비 헌목대부인, 제8비 정목부인, 제10비 숙목부인, 제18비 예화부인, 제25비 성무부인 등의 예외가 있지만, 29명 중 24명의 후비가 ‘지역 + 院夫人’의 형식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²⁰⁾ 후비의 관칭으로 사용된 지역에 나말여초기 강성한 지역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려 태조와 후비 가문의 입장에서 그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후비의 관칭으로 사용된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은 지역은 평주로, 고려 태조와 4차례의 혼인 관계를 형성했다.²¹⁾ 제9비 동양원부인(東

- 16) 『고려사』 후비전, 종실전에 수록된 많은 칭호가 당대의 호칭이 아니라 시호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아네스, 『고려의 국가제사와 왕실의례』, 경인문화사, 2019, 255~265면 참고. 본 논문에서 후비의 칭호는 『고려사』 후비전을 따른다.
- 17) 정용숙, 앞의 1992 책, 32~41면.
- 18) 태조의 III의 혼인 시기는 특정하기가 어렵다. 다만, 정용숙은 III시기의 혼인이 모두 신라 왕족과의 결합이라는 특색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앞의 1992 책, 39~41면).
- 19) 이정란, 「太祖妃 天安府院夫人과 天安府」, 『충청학과 충청문화』 12,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11, 42~46면.
- 20) 기존 연구에서는 후비의 관칭에 지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1) 해당 지역에서 호족의 세력이 강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旗田巍, 「高麗王朝成立期の「府」と豪族」, 『法制史研究』 10, 法制史学会, 1960;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部, 1972; 김갑동, 앞의 1990 책, 113~116면; 李義權, 「高麗의 郡縣制度和 地方統治政策」,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233~234면), 2) 출신지 및 연고지의 지명에서 ‘원호’를 삼았던 것(이정란, 앞의 2011 논문, 42~46면)이라는 견해가 제출되었다.
- 21) 『高麗史』 卷58, 地理志3, 西海道, 平州, “平州本高句麗大谷郡【一云多知忽】. 新羅景德王, 改爲永豐郡, 高麗初, 更今名, 成宗十四年, 置防禦使, 顯宗九年, 定爲知州事, 元宗十年, 併于復興郡, 忠烈王

陽은 평주의 별호),²²⁾ 제25비 성무부인, 제27비 월경원부인, 제28비 몽양원부인이 그들이다. 이중 제25비 성무부인의 아버지는 박지윤이며, 제27비 월경원부인의 아버지인 박수문과 제28비 몽양원부인의 아버지인 박수경은 박지윤의 두 아들이다. 박수문과 박수경은 신라의 북면 경계인 패강진이 있던 평주 지역의 실력자로 태조가 후백제를 정벌할 때 큰 공을 세웠던 인물들이었다.²³⁾ 박지윤과 그의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평주 지역의 실력자와 2대에 걸친 혼인을 통해 태조 왕권은 지역 세력과의 결속을 도모했으며, 박지윤과 그의 두 아들들은 평주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후비의 ‘지역’으로 두 번째 많은 지역은 경주이다. 총 3차례 나타나는데 제5비 신성왕태후는 신라왕족이며, 제7비 현목대부인, 제11비 천안부원부인 역시 경주 출신이다. 이중 제11비 천안부원부인은 경주출신인데도 천안부를 관창하고 있어 주목된다. 천안부원부인의 아버지는 임언이다. 임언은 경애왕 4년(927)에 지강주사 왕봉경의 명에 의해 후당에 들어가 조공을 바친 인물로, 신라의 관인이었다. 태조는 927년에 강주 소관의 4개의 고을을 함락하였고, 이때 이 지역 호족들이 귀부하였다.²⁴⁾ 이들 중 임언은 귀부의 대가로 천안부에 거주하게 되면서²⁵⁾ 해당 지역의 실력자가 되었다. 천안부는 나말여초 시기에 나주와 더불어 새롭게 부상한 지역이었다. 고려 초에 왕건은 태조 13년(930)에 고창군 전투에서 승리한 후 천안에 도독부를 설치하였다. 군사적 요충지였던 천안의²⁶⁾ 실력자였던 임언은 태조 왕건에게 귀부한 이후, 그의 딸이 태조의 제11비 천안부원부인이 되면서 마침내 고려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²⁷⁾ 임언의 사례는 경주에서 이주한 지역 세력이 새로 이주한 지역에서 관료로 임명되어 해당 지역의 새로운 실력자로 성장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왕실과의 혼인으로 이어져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획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관료적 성향의 가문이 해당 지역의 대표적 가문으로 성장한 것이다.

時, 復舊, 別號延德, 又號東陽, 有猪淺【一云沮江】, 有溫泉, 屬縣一”

22) 『高麗史』 卷58, 地理志3, 西海道, 平州.

23) 『高麗史』 卷92, 列傳5, 諸臣, 朴守卿.

24)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景哀王 4年;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 10年.

25) 이정란은 임언이 康州를 기반으로 한 호족이었을 것으로 보았다(앞의 2011 논문, 48면).

26) 金甲童, 「나말여초 天安府의 성립과 그 동향」, 『韓國史研究』 117, 韓國史研究會, 2002, 41면.

27) 김갑동, 앞의 2002 논문, 49~50면.

세 번째 많은 지역은 총 2차례인 정주, 명주, 동주, 광주 등이다. 정주는 제1비 신혜왕후와 제6비 정덕왕후를 배출한 지역으로 정주 유씨 세력이 거주하였다. 명주는 제8비 정목부인과 제14비 대명주원부인을 배출했는데, 제8비 정목부인의父는 王景이고, 제14비 대명주원부인의父는 王父이다. 왕경과 왕예는 모두 신라 왕족인 명주 군왕 김주원의 후손으로 태조 왕건으로부터 왕씨 성을 하사받았다.²⁸⁾ 태조는 제8비 정목부인, 제14비 대명주원부인과의 혼인을 통해 명주를 세거지로 하는 신라 종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다. 광주와 동주 지역은 자매가 태조와 혼인한 사례이다. 우선, 광주 지역의 세력가였던 왕규²⁹⁾는 태조에게 두 딸을 후비로 바쳤는데, 자매인 제15비 광주원부인과 제16비 소광주원부인이 그들이다. 왕규는 또한 고려 제2대왕인 혜종에게도 딸을 바쳤는데, 혜종의 제2비 후광주원부인이 그이다. 다음, 동주 지역의 세력가였던 김행파도 그의 두 딸을 태조에게 바쳤는데, 자매인 제19비 대서원부인과 제20비 소서원부인이 그들이다.³⁰⁾

이들 외에 후비를 한 명 배출한 지역은 대량, 신주, 의성, 그리고 황주이다. 대량은 합주의 별호로³¹⁾ 제13비 후대량원부인을, 신주 지역은 제22비 신주원부인을, 의성 지역은 제26비 의성원부인을 배출하였다. 제24비 소황주원부인의 경우, ‘지역 + 院夫人’ 형식으로 관칭하는 다른 사례로 미루어볼 때, 황주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태조의 제4비 신정왕태후, 황보씨 일족일 가능성이 크다.³²⁾

태조 왕건의 29명의 후비 중 대다수가 ‘지역 + 院夫人’ 형식으로 관칭하고 있는

28) 왕순식의 원래 이름은 김순식으로, 명주의 호족이었는데, 태조에게 귀부한 이후 왕성을 하사받았다. 정목부인의父인 왕경, 대명주원부인의父인 왕예도 명주를 기반으로 활동한 호족으로, 왕순식 휘하에서 활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왕경과 왕예도 왕씨 성을 하사받은 인물들로, 왕순식과 후비의父인 왕경·왕예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알 수 있다(김갑동, 『나말여초의 호족과 사회변동연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0). 다만 왕순식과는 달리 왕예는 신라 왕족인 김주원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金貞淑, 『金周元世系の成立과 그變遷』, 『白山學報』 28, 백산학회, 1984, 187~191면). 즉 왕예와 왕경이 태조와 혼인을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명주의 지역적 기반과 고려 건국 과정의 활약 외에 신라 왕실 출신이었다는 점 역시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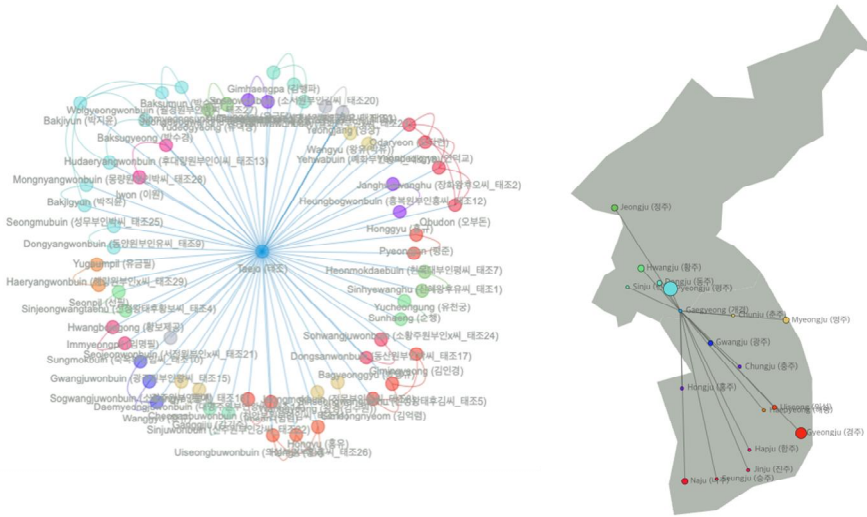
29) 왕규는 경기도 광주의 속현인 楊根縣 출신으로 원래 이름은 咸規였는데 왕씨 성을 하사받았다(『高麗史』 卷2, 世家2, 定宗 卽位年, 9월).

30) 『高麗史』 卷58, 地理志3, 西海道, 平州, 洞州.

31) 『世宗實錄』 卷150, 地理志, 慶尙道 尙州牧 陝川郡.

32) 정용숙, 앞의 1988 책, 34면; 李貞蘭, 「고려 后妃의 號稱에 관한 고찰」, 『典農史學』 2, 서울市立大學校 國史學科, 1996, 167면.

데,³³⁾ 태조 후비의 ‘지역’이 단순히 출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해당 ‘지역’은 왕비 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고지로 이해할 수 있다. 태조의 혼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후비 가문의 ‘지역’, 즉 ‘연고지’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려 태조의 혼인 네트워크와 후비의 관칭으로 사용된 지역을 네트워크로 시각화했다.³⁴⁾



〈그림 1〉 고려 태조의 혼인 네트워크(좌)와 후비 가문의 연고지(우)

〈그림 1〉은 고려 태조의 혼인 네트워크(좌)와 후비 가문의 연고지(우)를 시각화한 것이다.³⁵⁾ 고려 태조의 혼인 네트워크(좌)에서는 29명의 후비 및 그의 부와의 관계가

33) 이정란, 앞의 2011 논문, 42~46면.

34)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 방법은 데이터 안에서 인물들의 관계를 원과 선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분석 방법이다. 직관적으로 어떠한 인물 및 지역이 고려시대 왕실의 혼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확인하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 본고에서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 관해서는 Sparrow, Raymond T., R. C. Liden, and S. J. Wayne, 2001, "Social Networks And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s And Group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Hochberg, Yael V, A. Ijungsqvist, and Y. Lu, 2007, "Whom You Know Matters: Venture Capital Networks and Investment Performance," *The Journal of Finance* 52 참조.

나타나 있다. 후비 가문의 연고지(우)를 시각화한 그림에서 원은 후비의 연고지를 나타내며, 선은 태조와의 혼인 관계를 나타낸다. 원과 선의 크기는 왕실과의 ‘혼인 빈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혼인 빈도’는 기본적으로 왕과 혼인한 인물, 즉 후비와 후비의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의 연고지도 포함하여 파악하였다. 이는 왕실과의 혼인이 단순히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층에서 모층에 이르는 후비 가문과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층적 결합이기 때문이다.³⁵⁾ 그러므로 <그림 1>에서 원의 크기가 큰 경우, 태조와 혼인을 통해 관계를 맺은 인물들(후비와 후비의 혈연 포함)의 연고지 총합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선의 굵기도 원의 크기와 마찬가지로 연결된 연고지와 연고지 사이에 혼인 관계를 맺은 인물들의 총합이 클수록 굵게 표현되고 적을수록 얇게 표현된다.

<그림 1>의 오른쪽에서는 태조 왕건의 연고지인 개경을 제외하고, 평주와 경주지역이 가장 큰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주, 황주, 명주, 나주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우선, 지역 간 네트워크가 개경 대 그 외 지역, 즉 1 대 다수 지역의 네트워크만 나타난다. 이는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태조뿐만 아니라 29명의 후비 가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연고지’ 사이의 네트워크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단순하지 않다. 이들 후비 가문 간의 혼인 네트워크는 확인되지 않고, 오직 태조와의 혼인 네트워크로만 연계되어 있다. 즉, 29명의 후비 가문 간 연계 혹은 연대가 적어도 혼인을 통해서만 보이지 않는다. 태조 이후 현종 대에 이르면 후비 가문 사이에 혼인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된다. 태조와의 혼인을 통해 지배층의 지위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지배층 간 혼인을 도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태조와 혼인 관계를 맺은 후비 가문이 전국에 걸쳐 고루 분포해 있다. 태조는 혼인을 지역 세력과 연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5) 본 연구는 정적인 정보시각화의 단점-선택된 하나의 시점만을 보여줌-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자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각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Ferreira, G.E., Elkins, M.R., Jones, C. et al. Reporting characteristics of journal infographics: a cross-sectional study. *BMC Med Educ* 22, 326, 2022). 개발된 시각화 시스템은 본 연구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의 혼인 관계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한 툴로써 사용이 가능하며 다음의 링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http://www.ajoudhistory.com/2023/Goryeo/DiachronicPowerChanges/>

36) 예를 들어, 태조가 장화왕후오씨(태조의 2번째 부인)와 혼인하였을 때 장화왕후오씨의 아버지인 오다련, 어머니인 연덕교, 조부인 오부돈이 태조와 혼인을 통해 형성된 관계라고 해석하여 장화왕후오씨의 연고지인 나주의 혼인빈도 값은 4로 계산되는 방법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태조가 혼인 관계를 맺은 지역 중에는 한 번 이상 혼인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주, 황주, 경주, 평주, 명주, 나주 등이 그것으로 아무래도 태조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 생각된다. 정주는 왕건의 6왕후 중 제1왕후인 신혜왕후와 제6왕후인 정덕왕후의 연고지이다. 황주는 태조의 제4왕후인 신정왕후의 연고지이며, 경주는 태조의 5왕후인 신성왕후의 연고지이다. 평주는 혼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지역으로 표기된다. 박지윤, 박수문, 박수경의 연고지로 가장 많은 혼인 빈도수를 가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 명주와 나주 등 혼인 네트워크에서 유사한 빈도수를 나타낸다. 고려 초기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에 태조는 혼인을 통해 지역적 기반을 가진 세력을 왕실의 든든한 울타리로 만들었으며, 지역 세력은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공인받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9명의 후비 대다수가 ‘연고지 + 院夫人’ 형식으로 관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고지를 관칭하는 후비의 호칭은 해당 지역에 대한 후비 가문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고려의 지배층으로 성장해가는 기틀을 마련해갈 수 있었다. 이처럼 왕실과 지역 세력은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혼인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는 고려 전기 지배층이 형성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Ⅲ. 혜종~현종대 중층적 혼인 네트워크와 지배층의 형성

태조와 지역 세력과의 혼인은 왕실과 지방 세력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후비 가문의 지배층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태조 대에 형성된 왕실의 혼인 네트워크가 후대 왕인 혜종~현종 대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후비의 ‘稱姓’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칭성’은 ‘칭외성’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³⁷⁾ 『고려사』에서 후비의 기록은 왕실 혼인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즉내

37) 고려의 왕실혼인과 칭외성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외관계, 특히 대중국관계를 고려하여 同姓婚을 감추기 위한 諱姓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거나(今村 鞆, 「朝鮮婚姻制の一面觀察」, 『朝鮮』 190, 朝鮮總督府, 1931, 116~117면; 李熙永, 앞의 1966 논문, 30~35면), 고려사회의 혼인형태 및 가족구조의 특징으로 인해 칭외성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江原正昭, 앞의 1966 논문;

혼의 경우, 후비의 성씨, 후비의 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후비 칭성은 왕씨가 아닌
 外姓으로 하고 있다. 즉외혼의 경우, 후비의 성씨, 연고지, 후비의 부(직위 포함)가
 각각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후비의 칭성 기록은 후비의 가족 배경을 추적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특히 후비가 ‘칭외성’ 즉 ‘外姓’을 칭한 배경이 주목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는 ‘諱稱姓’, 즉 ‘칭성’의 원리로 이해하였다.³⁸⁾ 그러나 칭성의 원리인 혈연적 계승과
 더불어 ‘지역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사』의 ‘諱稱外姓’에서³⁹⁾ ‘外姓’은 ‘母의
 姓’, ‘祖母의 姓’, 또는 ‘曾祖母’의 姓을 지칭한 것이다. 고려 왕실은 母, 또는 祖母,
 曾祖母의 지역적 지지기반과의 연계를 지속 또는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칭성을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제 혜종~현종 대 혼인 양상을 칭성을 통해 살펴보겠다.

혜종의 후비는 총 4명으로, 의화왕후 임씨,⁴⁰⁾ 후광주원부인 왕씨,⁴¹⁾ 청주원부인
 김씨,⁴²⁾ 궁인 애이주가⁴³⁾ 그들이다. 의화왕후 임씨는 진주, 후광주원부인 왕씨는
 광주, 청주원부인 김씨는 청주, 궁인 애이주는 경주가 각각 연고지이다. 이들 중 의화

李光奎, 『韓國家族의 史的研究』, 一志社, 1977; 盧明鎬, 「高麗初期 王室出身의 ‘鄉里’勢力-麗初 親屬들의 政治勢力化 樣態」, 앞의 1986 책). 또한 姓 계승의 원리와 관련하여 이해하거나(盧明鎬, 앞의 1988 논문; 정용숙, 앞의 1988 책), 호족을 포섭하기 위한 수단으로 후비의 경우 外姓을 따르도록 하였다고 보았다(河炫綱, 앞의 1968 논문; 김갑동, 앞의 2009 논문).

38) 『高麗史』 卷75, 志29, 選舉3, 銓注, 事審官조에 의하면, 인종 12년(1134)의 사심관 규정에서 內鄉과 外鄉, 부의 鄉과 모의 鄉을 가장 가까운 연고지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內는 父, 外는 母를 의미하므로, 內姓은 父의 姓, 外姓은 母의 姓을 칭한다. 노명호는 칭성의 원리를 ‘諱稱姓’으로 파악하여 분석하였다(盧明鎬, 「高麗初期 王室出身의 ‘鄉里’勢力-麗初 親屬들의 政治勢力化 樣態」, 앞의 1986 책; 「高麗社會의 兩側의 親屬組織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8, 118~121면). 그에 따르면, 휘칭성의 원리는 고려의 왕실 출신 향리나 휘칭성은 외조가 왕실 출신이 아니면 우선 외조의 것을 따르고, 외조도 종실인 경우는 조모의 것을 따르고, 조모도 종실이면 그다음 가까운 종실이 아닌 선대 혈족의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른바 휘칭성은 혈연을 기반으로 한 칭성의 원리를 말한다.

39)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高麗之制王母稱王太后嫡稱王后妾稱夫人, 貴妃淑妃德妃賢妃是爲夫人秩並正一品自餘尙宮尙寢尙食尙針皆有員次靖宗以後或稱宮主或稱院主或稱翁主改復不常未可詳也太祖法古有志化俗然狃於土習以子聘女諱稱外姓其子孫視爲家法而不之怪惜哉, 盖夫婦人倫之本也, 國家理亂, 罔不由之, 可不慎歟, 故作后妃傳, 而嬪嬙夫人, 并各附于其次”

40)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惠宗, 義和王后林氏, 鎮州人, 大匡曦之女”

41)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惠宗, 後廣州院夫人王氏, 廣州人, 大匡規之女”

42)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惠宗, 淸州院夫人金氏, 淸州人, 元甫毓律之女”

43)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惠宗, 宮人哀伊主, 慶州人, 大千連義之女, 生太子濟明惠夫人”

왕후 임씨의 연고지인 진주는 <표 1>의 태조의 제10비 숙목부인의 그것과 같다. 후광주원부인 왕씨의 경우, 태조의 제15비 광주원부인과 제16비 소광부원부인과 연고지가 광주로서 같다.父인 왕규는 태조와 혜종 2대에 걸쳐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궁인 애이주의 연고지는 경주로 태조의 제5비 신성왕태후, 제7비 헌목대부인, 제11비 천안부원부인과 같다. 혜종의 후비 4명 중 청주원부인의 연고지인 청주는 태조 후비의 연고지에는 포함이 안 된 새로 등장한 지역이다. 청주는 혜종 대에 이어 정종 대에도 후비의 연고지로 등장하는데, 혜종의 청주원부인 김씨와⁴⁴⁾ 정종의 청주남원부인 김씨가 그들이다. 두 후비의 부는 김공률로 같다.⁴⁵⁾

정종의 경우, 후비가 3명인데 이미 언급된 청주남원부인 김씨, 그리고 문공왕후 박씨와 문성왕후 박씨가 그들이다. 문공왕후 박씨와⁴⁶⁾ 문성왕후 박씨는⁴⁷⁾ 박영규의 두 딸로, 연고지는 승주이다. 박영규는 태조 후비 제17비 동산원부인의 부이기도 하다. 박영규도 광주의 왕규와 청주의 김공률과 같이 두 명의 왕과 연속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처럼 태조부터 정종 대에 이르기까지 왕실 혼인은 주로 왕실과 지역 세력 간의 결합, 즉 족외혼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광종 대에 이르면 왕실 혼인의 양상이 바뀐다. 즉, 광종 대 왕실 혼인은 왕실 내 근친 간에 이루어졌다. 왕실 내 족내혼인 경우, 혼인 대상 후비의 성씨를 부측이 아닌 모측으로 칭하고 있다.

우선 광종의 경우, 2명의 후비를 맞아들이는데, 대목왕후 황보씨와⁴⁸⁾ 경화궁부인 임씨가 그들이다.⁴⁹⁾ 대목왕후는 태조의 딸이며, 경화궁부인은 혜종의 딸이므로, 이들 모두 성이 왕씨이며 연고지는 개성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목왕후의 경우, 성씨는 황보씨, 연고지는 황주로 나타난다. 이는 황주를 근거지로 하는 그의 모의 성씨와 연고지를 따른 것이다. 그의 모는 황주를 연고지로 하는 태조의 제4비 신정왕태후 황보씨이다.⁵⁰⁾ 경화궁부인의 경우, 성씨는 임씨, 연고지는 진주로 나타난다. 이는

44)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惠宗, 清州院夫人金氏, 清州人, 元甫兢律之女”

45)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定宗, 清州南院夫人金氏, 元甫兢律之女”

46)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定宗, 文恭王后朴氏, 昇州人, 三重大匡英規之女”

47)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定宗, 文成王后朴氏, 亦英規之女, 生慶春院君公主一”

48)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光宗, 大穆王后皇甫氏, 太祖之女”

49)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光宗, 慶和宮夫人林氏, 惠宗之女”

50)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神靜王太后皇甫氏, 黃州人, 太尉三重大匡忠義公悌恭之女, 生戴宗及

진주를 연고지로 하는 그의 모인 혜종의 후비 의화왕후의 성과 연고지를 따른 것이다.⁵¹⁾

경종의 후비는 총 5명이다. 현숙왕후 김씨는 신라 경순왕의 딸이고,⁵²⁾ 현의왕후 유씨는 종실인 문원대왕 왕정의 딸이다.⁵³⁾ 현애왕태후 황보씨와⁵⁴⁾ 현정왕후 황보씨는⁵⁵⁾ 대종의 딸이며, 대명궁부인 유씨는 종실인 원장태자의 딸이다.⁵⁶⁾ 경종의 혼인 관계의 경우, 족외혼과 족내혼의 두 가지 사례가 모두 보인다. 족외혼은 신라 경순왕의 딸인 현숙왕후 김씨와 혼인하면서 이루어졌다. 나머지 4번의 혼인은 모두 왕실 내 족내혼이다. 현의왕후 유씨의 아버지인 문원대왕 왕정은 태조의 제3비 신명순성왕태후 유씨의 아들이다.⁵⁷⁾ 현애왕태후와 현정왕후는 자매인데 이들의 아버지인 대종은 태조의 제4비 신정왕태후 황보씨의 아들이다.⁵⁸⁾ 대명궁부인 유씨의 아버지인 원장태자는 태조의 제6비 정덕왕후 유씨의 아들이다.⁵⁹⁾ 족내혼이 이루어졌을 경우, 경종의 후비는 모두 외조모의 성씨를 쓰고 있다. 이들이 외조모의 성씨를 따랐다는 것은 외조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의미한다. 즉 현의왕후는 충주 유씨, 현애왕태후와 현정왕후는 황주 황보씨, 대명궁부인은 정주 유씨 세력과 연계되어 있었다. 이들 지역 세력은 태조 대에 이어 경종 대에도 여전히 해당 지역의 유력세력이었고,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지배층의 지위를 유지 내지는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大穆王后”

- 51) 『高麗史』卷88, 列傳1, 后妃, “惠宗, 義和王后林氏, 鎮州人, 大匡曦之女, 太祖四年十二月, 册惠宗爲正胤, 以后爲妃, 生興化君慶化宮夫人貞憲公主”
- 52) 『高麗史』卷88, 列傳1, 后妃, “景宗, 獻肅王后金氏, 新羅敬順王之女也”
- 53) 『高麗史』卷88, 列傳1, 后妃, “景宗, 獻懿王后劉氏, 宗室文元大王貞之女”
- 54) 『高麗史』卷88, 列傳1, 后妃, “景宗, 獻哀王太后皇甫氏, 戴宗之女, 生穆宗”
- 55) 『高麗史』卷88, 列傳1, 后妃, “景宗, 獻貞王后皇甫氏, 亦戴宗之女”
- 56) 『高麗史』卷88, 列傳1, 后妃, “景宗, 大明宮夫人柳氏, 宗室元莊太子之女”
- 57) 『高麗史』卷88, 列傳1, 后妃, “神明順成王太后劉氏, 忠州人, 贈太師內史令兢達之女, 生太子泰定宗光宗文元大王貞證通國師, 樂浪興芳二公主.”
- 58) 『高麗史』卷88, 列傳1, 后妃, “神靜王太后皇甫氏, 黃州人, 太尉三重大臣忠義公悌恭之女, 生戴宗及大穆王后”
- 59) 『高麗史』卷88, 列傳1, 后妃, “貞德王后柳氏, 貞州人, 侍中德英之女. 生王位君仁愛君元莊太子助伊君, 文惠宣義二王后”

세 명의 후비를 둔 성종의 혼인 관계 역시 경종에 이어 즉내혼과 즉외혼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그중 문덕왕후 유씨는 광종의 딸로 왕실 내 즉내혼 사례이다. 다른 두 혼인은 모두 즉외혼인데 문화왕후 김씨는 선주 사람으로 시중에 추증된 김원숭의 딸이고,⁶⁰⁾ 연창궁부인 최씨는 우복야 최행언의 딸이다.⁶¹⁾

목종은 두 명의 후비를 두었는데 그중 선정왕후 유씨는 종실인 흥덕원군 왕규의 딸이다.⁶²⁾ 선정왕후는 아버지의 성인 왕씨나 조모의 성씨인 평씨를 칭하지 않았다. 선정왕후가 유씨를 칭한 것은 모계와의 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선정왕후의 모는 성종의 제1비 문덕왕후 유씨로, 충주 유씨이다. 한 세대 더 넓혀보면, 목종의 모는 황주 출신인 경종의 제3비 현애왕태후 황보씨이므로 목종과 문덕왕후의 결합은 황주 황보씨와 충주 유씨의 연합으로도 볼 수 있다. 목종의 또 다른 후비는 궁인 김씨이다. 목종의 총애를 받아 요석대궁인으로 칭해진 것으로 보아⁶³⁾ 연고지가 경주이고, 신분이 미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현종은 총 13명의 후비를 두는데, 그의 혼인 관계 중 3건은 즉내혼이고, 10건은 즉외혼이다. 즉내혼의 사례로 우선, 성종의 딸인 원정왕후 김씨와⁶⁴⁾ 원화왕후 최씨를⁶⁵⁾ 들 수 있다. 원정왕후 김씨의 모는 성종의 제2비인 문화왕후 김씨로 연고지가 선주이며, 김원숭의 딸이다.⁶⁶⁾ 원화왕후 최씨의 모는 성종의 제3비인 연창궁부인 최씨로 최행언의 딸이다.⁶⁷⁾ 현종은 성종의 후비의 두 딸을 각각 후비로 맞아들였다. 또한 경장태자⁶⁸⁾의 딸인 원용왕후 유씨와의 혼인도 왕실 내 즉내혼 사례이다.⁶⁹⁾ 경장태자는 대종 왕욱의 아들이다. 원용왕후의 부측은 황주 황보씨, 모측은 정주 유씨(모는 선의왕후 유씨, 외조모는 정덕왕후 유씨)이다.⁷⁰⁾ 원용왕후는 부측이 아닌

60)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成宗, 文和王后金氏, 善州人. 贈侍中元崇之女”

61)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成宗, 延昌宮夫人崔氏, 右僕射行言之女, 生元和王后”

62)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穆宗, 宣正王后劉氏, 宗室弘德院君圭之女”

63)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穆宗, 宮人金氏有寵, 號邀石宅宮人”

64)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顯宗, 元貞王后金氏, 成宗之女”

65)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顯宗, 元和王后崔氏, 亦成宗之女”

66)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文和王后金氏, 善州人, 贈侍中元崇之女, 初稱延興宮主, 或稱玄德宮主, 生元貞王后”

67)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延昌宮夫人崔氏, 右僕射行言之女, 生元和王后”

68)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戴宗旭, 光宗二十年卒, 子孝德太子成宗敬章太子”

69)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顯宗, 元容王后柳氏, 宗室敬章太子之女”

모측(외조모)을 따라 유씨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용왕후 유씨와의 족내혼은 기존의 유력 가문 중 황주 황보씨와 충주 유씨가 아닌 정주 유씨 세력과 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종의 족외혼 사례로 눈에 띄는 것은 안산 김은부와와 혼인 관계이다. 현종은 김은부의 3명의 딸을 후비로 맞아들였는데, 원성태후 김씨,⁷¹⁾ 원혜태후 김씨,⁷²⁾ 원평왕후 김씨⁷³⁾가 그들이다. 그 외 원목왕후 서씨는 이천 사람으로 내사령 서눌의 딸이고,⁷⁴⁾ 원순숙비 김씨는 평장사 김인위의 딸인데, 史書에 鄉이 누락되었다.⁷⁵⁾ 원질귀비 왕씨는 청주 사람으로 중서령 왕가도의 딸이다.⁷⁶⁾ 귀비 유씨는 史書에서 그 世系가 누락되었다.⁷⁷⁾ 또한 3명의 궁인도 후비로 기록했는데, 양주 출신인 궁인 한씨,⁷⁸⁾ 궁인 이씨,⁷⁹⁾ 전주 출신인 궁인 박씨가 그들이다.⁸⁰⁾

이상에서 살펴본 태조~현종 대 왕실 혼인의 유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태조~정종 대에는 주로 족외혼의 형태가, 광종 대에는 족내혼의 경향이 나타난다. 그 이후 경종~현종 대에는 족내혼과 족외혼이 혼합된 형태로 확인된다. 시기별로 왕실 혼인이 족외혼 → 족내혼 → 족내혼 + 족외혼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존의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후비의 연고지가 지속해서 주요하게 언급된다. 다음 <표 2>는 태조~현종 대 후비의 연고지를 일람한 것이다.⁸¹⁾

-
- 70) 『高麗史』 卷4, 世家4, 顯宗 4年, “癸卯, 納敬章太子女, 爲妃”
 - 71)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顯宗, 元城太后金氏, 安山人, 侍中殷傳之女”
 - 72)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顯宗, 元惠太后金氏, 亦殷傳之女”
 - 73)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顯宗, 元平王后金氏, 亦殷傳之女”
 - 74)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顯宗, 元穆王后徐氏, 利川人, 內史令訥之女”
 - 75)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顯宗, 元順淑妃金氏, 史失其鄉, 平章事因渭之女”
 - 76)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顯宗, 元質貴妃王氏, 清州人, 中書令可道之女”
 - 77)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貴妃庾氏, 史失世系”
 - 78)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宮人韓氏, 名萱英, 楊州人, 平章事藺卿之女”
 - 79)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宮人李氏, 給事中彥述之女”
 - 80)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宮人朴氏, 全州人, 內給事同正溫其之女”
 - 81) <표 2>는 태조~현종 대의 왕실과 지역 세력 간의 혼인을 통한 연계를 일람하기 위한 표이다. 이를 위해 왕실 내의 ‘족외혼 사례’ 및 ‘족내혼으로서 당사자가 외성을 칭한(칭외성) 사례’들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이다.

고려 태조~현종 대 왕실의 혼인 네트워크와 지배층의 형성

〈표 2〉 태조~현종 대 후비의 연고지 일람표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현종	합계
1	정주유씨	2				1			1	4
2	나주오씨	1								1
3	충주유씨	1				1	1	1		4
4	황주황보씨	1			1	2				4
5	경주김씨	1				1				3
6	경주평씨	1								1
7	명주왕씨	1								1
8	평주유씨	1								1
9	진주임씨	1	1		1					3
10	천안임씨	1								1
11	홍주홍씨	1								1
12	합주이씨	1								1
13	명주왕씨	1								1
14	광주왕씨	2	1							3
15	승주박씨	1		2						3
16	춘주왕씨	1								1
17	동주김씨	2								2
18	신주강씨	1								1
19	평주박씨	3								3
20	의성홍씨	1								1
21	해평선씨	1								1
22	청주김씨		1	1						2
23	선주김씨						1		1	2
24	경주최씨						1		1	2
25	안산김씨								3	3
26	청주왕씨								1	1
27	이천서씨								1	1
28	양주한씨								1	1
29	전주박씨								1	1
30	궁인		1					1	1	3
31	미상	3							2	5
	합계	29	4	3	2	5	3	2	13	61

출전 : 『高麗史』 「后妃傳」

〈표 2〉에서 1의 정주유씨부터 21의 해평선씨까지는 태조 대에 왕실과 혼인을 한 지역 세력이다. 혼인의 횟수와 지역적 위치는 해당 지역 세력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배력을 확대하는 주요한 요소였다. 태조 대 평주박씨는 세 번, 정주유씨·광주왕씨·동주김씨는 각각 두 번, 그리고 미상 세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세력은 왕실과 한 번씩 혼인했다. 그중 일부는 이후 왕들과 거듭 혼인을 맺고 있다.⁸²⁾ 진주임씨·광주왕씨는 혜종과, 승주박씨는 정종과, 진주임씨·황주황보씨는 광종과, 정주유씨·충주유씨·황주황보씨·경주김씨는 경종과, 충주유씨는 성종과, 충주유씨·경주김씨는 목종과, 그리고 정주유씨·선주김씨·경주최씨는 현종과 혼인했다. 고려 왕실의 세력 기반인 개경의 근접 지역 세력도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강화해 갔다. 신주, 평주,⁸³⁾ 황주는 신라의 북방경계인 패강진이 설치되었던 개경 위쪽에 있는 지역이었으며, 동주 역시 이들 지역과 근접한 주요한 지역이었다.⁸⁴⁾

또한 〈표 2〉에서 왕실 혼인을 통해 새롭게 부상한 지역 세력도 주목된다. 혜종과 정종 대의 청주김씨, 성종대의 선주김씨와 경주최씨, 현종대의 안산김씨, 청주왕씨, 이천서씨, 양주한씨, 전주박씨 등이 그들이다. 이들의 등장은 왕실 혼인 네트워크의

82) 황향주는 태조 자녀들의 출생연도 및 혼인 시기를 추정하여 태조 자녀세대의 혼인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누었다. I기는 혜종, 태자 태(왕태), 정종, 안정숙의공주(낙랑공주)의 혼인으로, 태조 재위기에 태조의 개입으로 혼인이 이루어졌고, II기는 태조의 사후에 추진된 혼인으로, 왕실 내의 근친혼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I기에서 태조는 생전에 자녀들의 혼인을 추진하면서 외혼과 내혼의 두 가지 왕실혼의 유형을 제시하였고, 이는 왕실과 외척을 제한된 규모로 재생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인척관계망을 온전히 후대로 계승시켜 고려 최상층의 구심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보았다. II기에 왕실 내 근친혼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고려 건국 후 남비된 태조의 후비들이 비슷한 시기에 수많은 왕자와 공주를 생산한 데 있다고 보았다. 결국 고려 초 왕실은 왕녀 혹은 宗女의 수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왕자들이 근친혼을 추진하였던 것이라고 이해하였다(「10~13세기 고려 왕실의 구조와 편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2, 29~41면).

83) 『高麗史』卷58, 地理3, 西海道, 平州, “平州本高句麗大谷郡【一云多知忽】, 新羅景德王, 改爲永豐郡, 高麗初, 更名今, 成宗十四年, 置防禦使. 顯宗九年, 定爲知州事, 元宗十年, 併于復興郡, 忠烈王時, 復舊. 別號延德, 又號東陽, 有猪淺【一云淇江】, 有溫泉, 屬縣一”

84) 태조 왕건의 휘하에서 공로가 컸던 인물들 중 패강진 소속이 다수이다. 평주의 유궁필과 박수경, 중화현의 김락, 황주의 최용, 동주의 김행파, 염주의 윤선 등은 모두 패강진 소속이다. 이로 보아 태조의 세력은 일차적으로는 송악에서 형성된 것이었으나 어느 정도 패강진 지역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기백, 『高麗兵制史研究』, 일조각, 1990, 47면 주5; 이기동, 「新羅 下代の 淇江鎮」, 『한국학보』 4, 일지사, 1976;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재수록, 229면).

범주를 확장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배층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처럼 고려 전기의 왕실 혼인은 고려 왕실과 지역 세력 간의 연계를 전제로 한다.⁸⁵⁾

다음은 이상에서 살펴본 태조~현종대 왕실과 후비 가문 사이의 혼인 네트워크를 후비 가문의 연고지를 기반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태조~현종 대 왕실 혼인유형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누어 왕실 혼인 네트워크는 시각화했다. 다만, 왕실 혼인 네트워크의 변화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각각 두 왕 대의 혼인 네트워크를 각각 나누어 비교했다. 첫 번째, 태조 대와 족내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광종 대, 두 번째, 족내혼과 족외혼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경종 대와 목종 대, 마지막으로 현종 대 누적된 왕실 혼인 네트워크를 살폈다. 다음은 첫 번째 태조 대와 광종 대 왕실 혼인 네트워크의 시각화이다.



〈그림 2〉 태조 대 혼인 네트워크 〈그림 3〉 광종 대 혼인 네트워크

85) 고려에서는 인물의 출신지 또는 연고지가 주요한 지지기반이었다. 이는 특정인물의 연고지, 특히 內鄕 또는 外鄕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승격되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관과 공신들에 대한 우대초치로 內·外鄕에 대한 邑號를 승격시켜주는 조치는 목종 4년(1001) 이후, 무신집권기에 빈번하게 나타난다. 특정 인물을 계기로 읍격이 높아지는 경우,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출신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蔡雄錫, 앞의 2000 책, 58~59면).

〈그림 2〉는 태조 대의 혼인 네트워크이고, 〈그림 3〉은 태조~광종 대까지 누적 혼인 네트워크이다. 태조 대 혼인 네트워크는 태조가 있는 개경을 중심으로 혼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태조 대 통혼 지역이 한 지역에 치중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태조가 혼인을 지역 세력과 연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조~광종 대 혼인 네트워크의 중심 지역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평주이다. 평주는 태조의 제9비인 동양원부인, 제25비 성무부인, 제27비인 월경원부인, 제28비인 몽양원부인의 연고지이다. 이들의 딸인 유금필과 박수경은 태조를 보필한 무장으로, 특히 박수경의 경우 태조가 공로의 다소를 고려하여 역분전을 지급할 때, 특별히 田 200結을 하사할 정도로 활약한 인물이었다.⁸⁶⁾ 평주는 『高麗史』地理志에 의하면 황주의 담당 지역으로, 패강이 있다.⁸⁷⁾ 평주, 황주, 동주, 신주 등은 신라의 북방경계, 즉 패강진이 있던 지역으로 태조의 고려 건국 이후, 통일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무장 세력의 연고지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 세력 간의 결속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⁸⁸⁾ 이렇게 평주는, 혼인의 빈도수로 인해 혼인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가장 크지만, 태조의 건국 과정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의 지지기반이었던 정주와 황주, 신주 등의 서북방세력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생각된다.

해중에서 광종 대에도 평주의 노드 크기는 여전히 개경보다 크다. 이는 광종이

86) 『高麗史』卷92, 列傳5, 諸臣, 朴守卿, “後定役分田, 視人性行善惡, 功勞大小, 給之有差, 特賜守卿田二百結.”

87) 『高麗史』卷58, 地理志3, “黃州牧本高句麗冬忽【一云于冬於忽】, 新羅憲德王, 改爲取城郡. 高麗初, 更今名. 成宗二年, 初置十二牧, 州其一也. (생략) 平州本高句麗大谷郡【一云多知忽】, 新羅景德王, 改爲永豐郡. 高麗初, 更今名. 成宗十四年, 置防禦使. 顯宗九年, 定爲知州事. 元宗十年, 併于復興郡. 忠烈王時, 復舊. 別號延德. 又號東陽. 有猪淺【一云涇江】, 有溫泉. 屬縣一.”

88) 태조 1비와 6비의 연고지인 정주 역시 이들과 같은 지역적 연대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들은 모두 태조의 고려 건국 이후, 통일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무장 가문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정주는 태조의 1비인 신혜왕후와 2비인 장화왕후의 연고지는 각각 정주와 나주이다. 태조가 신혜왕후와 장화왕후와 혼인한 시점은 태조가 후고구려의 궁예 휘하에서 장군으로 군사활동을 활발하게 했을 때이다(정용숙, 앞의 1992 책, 34면). 그뿐만 아니라 태조가 혼인한 정주와 나주의 지역세력은 주로 해상무역을 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부호가였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정주 지역의 해상력과 재력은 태조에게 큰 뒷받침이 되었을 것이다(姜喜雄, 「高麗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 『韓國學報』7, 1977, 69면.) 1비인 신혜왕후에 이어 6비인 정덕왕후를 후비로 맞아들이는 것을 통해 정주 지역세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주와 황주를 비롯한 서북방의 지역 세력들과 깊은 연계를 가진 인물이었던 사실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⁸⁹⁾ 그런데 태조 대 형성된 1 대 다수 지역의 왕실 혼인 네트워크는 광종 대 누적 혼인 네트워크에서 변화를 보인다. 태조가 있는 개경과 각 지역이 1 대 다수 지역이라는 방사선의 형태에서 각 지역 사이의 연결선이 나타나고 있다. 혼인 네트워크가 왕실뿐만 아니라 각 세력 사이로 중층화되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지역 세력은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역시 중앙지배층으로 성장했다. 충주 유씨인 태조의 제3비 신명순성왕태후의 아들들인 왕요(정종)와 왕소(광종), 왕정은 혜종 이후의 왕위 계승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들이었다. 왕소와 왕정은 각각 이복남매와 근친혼을 했는데, 왕소는 태조의 제4비인 황주 황보씨 신정왕태후의 소생인 대목왕후와,⁹⁰⁾ 그리고 왕정은 제6비인 정주 유씨 정덕왕후의 소생인 문혜왕후와 혼인하였다.⁹¹⁾ 왕실과의 혼인을 기반으로 충주 유씨, 정주 유씨, 황주 황보씨의 세 후비 가문은 통혼권을 형성하여 유력한 후비 가문으로 성장하였다.⁹²⁾ 태조와 혼인 관계를 맺은 정주유씨, 황주황보씨, 충주유씨는 태조 이후에도 왕실은 물론 그들 간의 혼인을 거듭함으로써 지배층 간의 혼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권력을 재생산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지배층으로 부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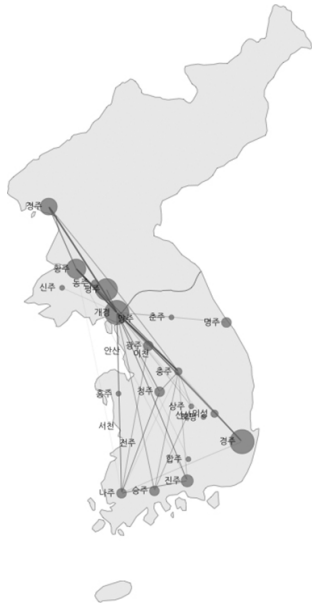
두 번째는 경종 대와 목종 대 왕실 혼인 네트워크의 시각화이다. <그림 4>는 경종 대까지 누적된 왕실 혼인 네트워크이고, <그림 5>는 목종 대까지 누적된 왕실 혼인 네트워크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전 왕실 혼인 네트워크보다 개경의 노드가 커졌다는 점이다. 이는 왕을 중심으로 한 혼인 네트워크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 5>에서 주목되는 양상은 정주와 충주, 황주 등 지역 사이의 네트워크가 더욱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왕실과 지배층 간의 혼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배층 사이에도 혼인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³⁾

89) 태조의 22비인 신주원부인 강씨가 양육하였다(『高麗史』卷88, 列傳1, 后妃, “信州院夫人康氏, 信州人, 阿滄起珠之女. 生一子, 早卒, 養光宗爲子.”). 광종이 황주황보씨인 대목왕후와 혼인 하였던 것은 신주와 황주가 근접지역 출신의 호족이라는 점이 작용하였을 것이다(鄭容淑, 앞의 1988 책, 89~90면; 김선미, 「高麗前期 王位繼承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2, 63~64면).

90) 『高麗史』卷88, 列傳1, 后妃, “光宗. 大穆王后皇甫氏, 太祖之女.”

91) 『高麗史』卷91, 列傳4, 公主, “文惠王后, 貞德王后柳氏所生, 適文元大王貞.”

92) 李泰鎮, 「金致陽 亂의 性格-高麗初 西京勢力的 政治的 推移와 관련하여」, 『韓國史研究』17, 1977.



〈그림 4〉 경증 대 혼인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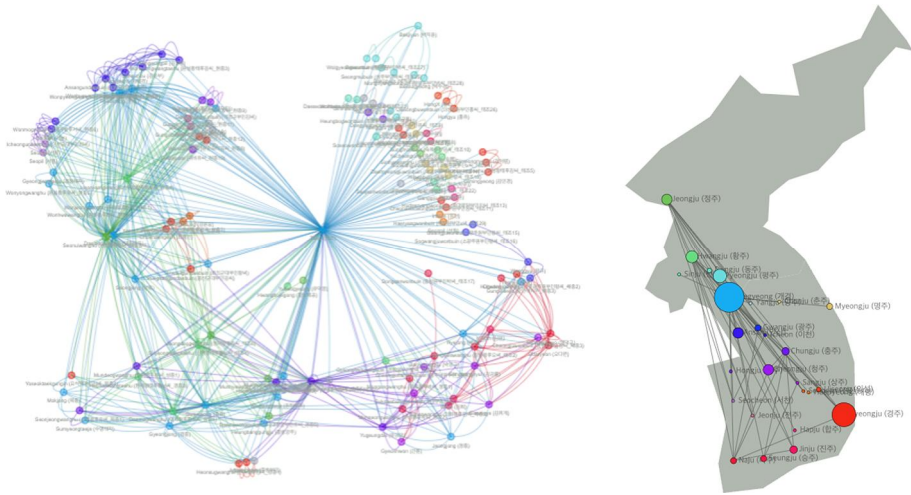
〈그림 5〉 목증 대 혼인 네트워크

이처럼 태조와의 혼인 관계로 각 연고지를 기반으로 세력을 유지하던 지방 세력들이 중앙지배층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후 왕들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배층 사이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태조 대에 형성된 왕실 혼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각 연고지를 세력 기반으로 한 지배층이 성립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종 대까지 누적된 왕실 혼인 네트워크이다. 〈그림 6〉의 왼쪽은 태조부터 현종대 왕실 혼인 전체를 네트워크로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후비 가문의 지역적 기반을 지도상에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1〉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에서 원은 후비의 연고지이며, 선은 혼인 관계이다. 왕실과의 ‘혼인 빈도’에 따라 원과 선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오른쪽 그림에서 개경은 가장 큰 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태조에서 현종 대에 이르기까지 왕대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왕실 내의 족내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93) 네트워크에서 두 지역 사이에 선(링크)이 연결 되었다는 것은 혼인을 통해 지역간의 관계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링크)의 굵기는 관계의 빈도수를 의미한다. 즉 지역간 혼인을 통해 많은 관계가 생성된 경우, 선의 굵기가 더 굵게 표시된다.

고려 태조~현종 대 왕실의 혼인 네트워크와 지배층의 형성



〈그림 6〉 태조~현종대 왕실과 후비 가문 사이의 누적된 혼인 네트워크 시각화

앞의 〈그림 1〉에서 크게 나타났던 경주, 평주, 황주 지역은 〈그림 6〉에서도 여전히 그 세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려 태조 대에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획득한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력과 대표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확장해왔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그림 1〉에서 큰 원으로 나타났던 나주, 정주, 명주 지역의 경우, 〈그림 6〉에서는 그 크기가 축소되었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이전의 영향력을 단순히 유지하는 데 머물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에서 보이지 않던 서천이나 전주와 같은 지역 세력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림 1〉에서 혼인 네트워크 선이 일방적으로 개경으로 향해있던 것에서 벗어나, 혼인 네트워크 선이 각 지역 사이로 다방면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3〉~〈그림 5〉에서 확대되던 지배층 사이의 혼인 네트워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후비 가문 사이의 혼인을 통한 연대가 심화하고 있다.⁹⁴⁾ 결국, 〈그림 1〉과 비교했을 때 왕실 혼인 네트워크는 왕실과 지배층 사이의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지배층 사이의 혼인 관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94) 왕실 혼인을 통해 형성된 지배층이 그들 자체의 혼인 네트워크를 통해 강한 결속을 맺어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은 고려 지배층의 성격을 이해하는 주요한 열쇠이다. 이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림 6〉에서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경주 지역의 노드 크기가 개경 다음이라는 것이다. 사실 경주의 노드 크기는 〈그림 2〉~〈그림 6〉까지 지속해 수위를 차지하였다. 그 이유는 경주가 지역은 태조부터 현종 대까지 거듭되는 왕실 혼인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태조는 935년에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혼인하였는데, 태조의 935년 이후의 혼인은 모두 신라 왕실과의 결합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구 신라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 고려 왕실의 권위를 확고히 하고자 한 의도였다.⁹⁵⁾ 태조의 제5비인 신성왕태후는 신라왕족이고,⁹⁶⁾ 제7비인 현목대부인, 제11비인 천안부원부인도 경주 출신이다. 또한 제14비인 대명주원부인도 신라 왕실과 관련이 있다. 즉, 제8비인 정목부인의 부는 왕경이고, 제14비인 대명주원부인의 부는 왕예인데, 이들은 명주호족인 왕순식의 휘하에 있던 이들이다. 왕순식이 아닌 이들이 왕실 혼인의 대상으로 선택된 것은 이들이 명주군왕 김주원의 후손으로 신라 왕족이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경종이 경순왕의 딸인 현숙왕후와 혼인하고,⁹⁷⁾ 성종이 경주 최씨인 연창궁부인과 혼인하고,⁹⁸⁾ 현종이 성종과 연창궁부인의 딸인 원화부인과 혼인하였다.⁹⁹⁾

그런데 경주는 다른 지역 세력과 혼인 네트워크를 맺지 않았다. 지배층으로 성장한 지역 세력들이 점차로 그들 사이의 혼인 네트워크를 확대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고려 왕실이 경주 출신의 왕족 및 귀족과의 혼인을 통해 신라 왕실의 계승성을 천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태조의 제5비인 신성왕태후의 외손인 현종이 왕위를 계승하였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⁰⁰⁾ 현종은 그의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라 왕실의 권위를 활용했

95) 정용숙, 앞의 1992 책, 32~47면.

96) 신성왕태후의 출신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존재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는 태조가 김여림의 딸을 배우자로 맞아들였다고 하여 신라 왕족출신으로 기록한 반면, 『삼국유사』와 『고려사절요』에서는 '陝州守 李正言'라는 설도 있다는 점을 부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류선영은 신성왕태후는 생전에 대량원부인으로 불리웠는데, 이는 부친인 김여림이 대량의 관리를 지냈던 데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류선영, 「高麗 太祖의 6王后 研究」,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13, 104~111면).

97)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景宗. “獻肅王后金氏, 新羅敬順王之女也.”

98)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成宗, “延昌宮夫人崔氏, 右僕射行言之女, 生元和王后.”

99) 『高麗史』 卷88, 列傳1, 后妃, 顯宗, “元和王后崔氏, 亦成宗之女, 生孝靜公主·天壽殿主. 初稱恒春殿王妃, 後改常春殿. 亦從王南幸. 八年十二月, 贈后外祖崔行言尚書左僕射, 外祖母金氏豐山郡大夫夫人, 母崔氏樂浪郡大夫夫人. 薨, 謚元和王后.”

다.101)

이상 <그림 2>에서 <그림 6>의 혼인 네트워크의 변화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태조~현종 대까지 고려 전기 8명의 왕은 4대에 걸쳐있었다. 1세대는 태조, 2세대는 혜종, 정종, 광종, 3세대는 경종과 성종, 그리고 4세대는 목종과 현종이다. 4세대에 걸친 혼인의 유형은 태조~정종까지 족외혼, 광종의 족내혼, 경종~현종까지 족외혼+족내혼의 형태가 보인다. 그런데 혼인의 빈도와 지역을 변수로 한 태조~현종 대까지 혼인 네트워크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림 2>에서 <그림 6>까지 태조부터 현종 대까지 왕실 혼인 네트워크를 시기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태조~현종 대 왕실 혼인 네트워크의 시기 구분

왕대	왕명	시기구분		
		세대	혼인유형	혼인 네트워크
1	태조	I	I	I
2	혜종	II		
3	정종			
4	광종			
5	경종	III	III	II
6	성종			
7	목종			
8	현종	IV		III

100) 『三國史記』卷12, 敬順王 9년 12월, “論曰. (생략) 我太祖妃嬪衆多, 其子孫亦繁衍, 而顯宗自新羅外孫, 即寶位, 此後繼續者, 皆其子孫, 豈非陰德之報者歟.”

101) 신성왕태후의 출신을 현종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이해한 견해들이 주목된다. 노명호는 『삼국유사』에서 일연이 합주이씨설을 거론한 것은 현종의 취약한 정통성, 신라왕실 계승의식, 삼국사기의 심라중심 서술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고려국가와 집단의식: 자위공동체, 삼국유민, 삼한일통, 해동천자의 천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108~128면). 하현강은 고려왕조의 공식적인 태도가 신라계승 의식이었고, 이것이 삼국사기에 반영되어 현종의 출신이 기록된 것으로 보았다(앞의 1988 책, 385~386면).

〈표 3〉은 왕실 혼인 네트워크의 시기를 구분하여 세대와 혼인유형과 비교한 것이다. 왕실 혼인 네트워크의 I기는 왕실과 지역 세력이 혼인을 매개로 결합하는 시기인 태조~광종 대까지이다. 이 시기에 지역 세력은 왕실과의 혼인을 매개로 지배층으로 부상하였다. II기는 태조 대에 형성된 지배층이 왕실은 물론 각 세력 사이의 혼인을 통해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시기로, 경종~목종 대까지이다. 태조 대 부상한 지배층은 이 시기에 왕실은 물론 지배층 사이에 중첩된 혼인을 기반으로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III시기는 왕실 혼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존 지배층의 세력 강화와 새로운 지배층의 편입이 이루어지는 현종 대이다. 이 시기에 지배층은 왕실과 그들 사이의 혼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배층 사이에 권력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처럼 혼인 네트워크는 왕실은 물론 지배층이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수단이었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신라말 지역 세력[호족]이 중앙의 지배층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왕실의 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기존의 국가권력과 지역 세력이라는 이항 대립적 관점에서 벗어나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지배층의 연속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고려 태조~현종 대에 이르는 왕실의 혼인 네트워크를 살폈는데, 각 왕의 후비의 稱姓을 중심으로 살폈다.

고려 태조는 29명의 후비를 두었는데, 이를 통해 지역적 기반을 가진 지역 세력을 왕실의 든든한 울타리로 만들었다. 전국에 걸친 후비 가문들은 왕실과의 혼인으로 인해 그들의 연고지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받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고려의 지배층으로 성장해가는 기틀을 마련해 갈 수 있었다. 태조의 후비 중 대부분은 ‘연고지 + 院夫人’ 형식으로 관칭했다. 연고지를 관칭하는 후비의 호칭은 해당 지역에 대한 후비 가문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태조 대에 형성된 왕실의 혼인 네트워크는 후대 왕인 혜종~현종 대에도 지역 세력이 지배층으로 성장해가는 데 주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이 시기 왕실 혼인의 유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태조~정종 대에는 주로 족외혼의 형태가, 광종 대에는 족내혼이, 그리고 경종~현종 대에는 족내혼과 족외혼이 혼합된 형태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후비의 연고지가 지속해 주요하게 언급된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후비 가문의 지배력과 대표성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지배층의 범주가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태조~현종 대의 왕실 혼인은 족외혼을 통해 권력의 외연을 확장하고, 족내혼을 통해 권력의 내연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후비의 칭성 사례는 이러한 점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태조와 혼인 관계를 맺은 정주유씨, 황주황보씨, 충주유씨는 태조 이후에도 왕실 및 종실과 거듭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권력을 재생산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지배층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혜종과 정종대의 청주김씨, 성종대의 선주김씨, 경주최씨, 현종 대의 안산김씨, 이천서씨, 청주왕씨, 양주한씨, 전주박씨 등은 새롭게 부상한 세력이었다. 또한 왕실 및 왕족 내에서 황주황보씨와 충주유씨, 정주유씨 세력이 왕실 내 족내혼에서 후비의 稱姓 대상으로 거듭 등장하고 있다. 요컨대 태조~현종 대 왕실의 혼인 네트워크는 왕실과 지역 세력을 연결하는 매개이자 지역 세력을 지배층으로 유입하는 기반이었고, 권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수단이었다.

왕실 혼인을 통해 성장한 지배층은 그들이 성취한 정치·사회·경제적 지위를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로 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만 했다. 지배층은 정치적 지위가 그들의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인 관직을 획득하게 하려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왕실과 종실, 그리고 다른 지배층과 혼인 관계를 맺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정치·사회적 지위가 경제적 지위로 이어지도록 전시과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제도를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련해갔다. 고려의 지배층은 이전 시기보다 더 치열하게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했다. 이러한 경쟁에서는 성공한 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성공 전략을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향후 연구 과제이다. 본 연구는 그 시발점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史記』

- 김갑동, 『나말여초의 호족과 사회변동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_____, 『고려전기 정치사』, 일지사, 2005
_____, 『고려 태조 왕건정권 연구』, 해안, 2021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통일전쟁 연구』, 해안, 2014
김아네스, 『고려의 국가제사와 왕실의례』, 경인문화사, 2019
金哲垞,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1975
노명호, 『고려국가와 집단의식: 자위공동체, 삼국유민, 삼한일통, 해동천자의 천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邊太燮 編,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신호철, 『후삼국시대 호족연구』, 개신, 2002
이기동,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李基白,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_____,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李光奎, 『韓國家族의 史的研究』, 一志社, 1977
鄭容淑, 『高麗王室族內婚研究』, 새문사, 1988
_____, 『고려시대의 后妃』, 민음사, 1992
鄭靑柱, 『新羅末高麗初 豪族研究』, 一潮閣, 1996
蔡雄錫, 『高麗時代의 國家와 地方社會-‘本貫制’의 施行과 地方支配秩序』,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河炫綱, 『韓國中世史研究』, 一潮閣, 1988
黃善榮, 『高麗初期 王權研究』, 東亞大學校出版部, 1988
旗田巍, 『朝鮮中世社會史의 研究』, 法政大學出版部, 1972

姜喜雄, 「高麗惠宗朝 王位繼承亂의 新解釋」, 『韓國學報』 7, 1977
具山祐, 「高麗前期 鄉村支配體制 연구의 현황과 방향」, 『釜大史學』 23, 釜山大學校史學會, 1999
김갑동, 「나말여초 天安府의 성립과 그 동향」, 『韓國史研究』 117, 韓國史研究會, 2002
金光洙, 「羅末麗初의 豪族과 官班」, 『韓國史研究』 23, 韓國史研究會, 1979
김선미, 「高麗前期 王位繼承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22
김아네스, 「고려 태조대 귀부호족과 本邑將軍」, 『震檀學報』 92, 震檀學會, 2001

- 金貞淑, 「金周元世系の 成立과 그 變遷」, 『白山學報』 28, 백산학회, 1984
- 權眞澈, 「高麗太祖의 后妃策에 關한 再考」, 『白山學報』 47, 1996
- 盧明鎬, 「高麗初期 王室出身의 ‘鄉里’勢力-麗初 親屬들의 政治勢力化 樣態」,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 _____, 「高麗社會의 兩側의 親屬組織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8
- 류선영, 「高麗 太祖의 6王后 研究」,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13
- 朴菑熙, 「高麗初期 豪族聯合政權說에 對한 檢討-‘歸附’豪族의 政治적 성격을 중심으로」 『韓國史의 視覺』, 永信文化史, 1984
- 신수정, 「고려시대 신정왕태후 황보씨의 위상 변화: 왕실 근친혼과 관련하여」, 『여성과 역사』 23, 한국여성사학회, 2015
- 申虎澈, 「後三國時代 豪族聯合政治」, 『韓國史上的 政治形態』, 翰林科學院叢書18, 一潮閣, 1993
- 이기동, 「新羅 下代의 涇江鎮」, 『한국학보』 4, 일지사, 1976
- 李基白, 「高麗 貴族社會의 成立의 概要」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4
- _____, 「新羅私兵考」, 『歷史學報』 9, 역사학회, 1957
- _____, 「고려 地方制度의 整備와 州縣軍의 成立」, 『曉城趙明基博士華甲紀念佛敎史學論叢』, 1965
- _____, 「王建」, 『韓國의 人間像』 2, 新丘文化社, 1965
- 李樹健, 「高麗前期 土姓研究」, 『大丘史學』 14, 대구사학회, 1978
- 이순근, 「羅末麗初 「豪族」 용어에 對한 研究사적 검토」, 『論文集』 19, 성심여자대학교, 1987
- 李純根, 「羅末麗初 地方勢力의 構成形態에 關한 一研究」, 『韓國史研究』 67, 韓國史研究會, 1989
- 李義權, 「高麗의 郡縣制度와 地方統治政策」, 『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 李貞蘭, 「고려 后妃의 號稱에 關한 고찰」, 『典農史學』 2, 서울市立大學校 國史學科, 1996
- 이정란, 「太祖妃 天安府院夫人과 天安府」, 『충청학과 충청문화』 12, 2011
- _____, 「高麗 王家의 龍孫意識과 王권의 變動」, 『韓國史學報』 55, 高麗史學會, 2014
- 李泰鎭, 「金致陽 亂의 性格-高麗初 西京勢力의 政治的 推移와 關聯하여」, 『韓國史研究』 17, 1977
- 嚴成鎔, 「高麗初期王權과 地方豪族의 身分變化-‘豪族聯合政權’說에 對한 檢討」,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1986
- 윤경진, 「고려초기의 정치체제와 호족연합정권설」, 『한국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2002
- 尹庚子, 「高麗王室의 婚姻形態」, 『淑大史論』 3,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1968
- 鄭容淑, 「高麗初期 婚姻政策의 추이와 王室族內婚의 성립」, 『韓國學報』 37, 1984
- _____, 「公主의 婚姻關係를 통해 본 高麗王室婚의 一斷面」, 『高麗史의 諸問題』, 삼영사, 1986

- 崔圭成, 「豪族聯合政權說에 對한 研究史的 檢討」, 『國史館論叢』 78, 국사편찬위원회, 1997
- 하일식, 「신라 말·고려 초의 지방사회와 지방세력-향촌 지배세력의 연속성에 대한 시론」, 『한국중세사연구』 29, 한국중세사학회, 2010
- 河炫綱, 「高麗地方制度의 研究」, 『韓國研究叢書』 32, 韓國研究院, 1977
- _____, 「高麗前期의 王室婚姻에 對하여」, 『梨大史苑』 7, 이대사학회, 1968
- _____, 「高麗 王朝의 成立과 豪族聯合政權」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77
- 한국역사연구회, 「나말여초 호족의 연구동향-196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 1990
- 황향주, 「10~13세기 고려 왕실의 구조와 편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2
- 今村 軔, 「朝鮮婚姻制の一面觀察」, 『朝鮮』 190, 朝鮮總督府, 1931
- 江原正昭, 「高麗王族의 成立—特に太祖의 婚姻을 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 1966
- 李熙永, 「高麗朝歷代妃嬪의 姓의 繼承에 關する—試論—同姓不婚制의 形成過程에 對하여—」, 『民族學研究』 31卷1號, 1966
- 旗田 巍, 「高麗王朝成立期の 土豪と 族團」, 1957
- 旗田 巍, 「高麗王朝成立期の 「府」 と 豪族」, 『法制史研究』 10, 法制史学会, 1960
- Sparrowe, Raymond T., R. C. Liden, and S. J. Wayne, 2001, “Social Networks And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s And Group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 Hochberg, Yael V, A. Ljungqvist, and Y. Lu, 2007, “Whom You Know Matters: Venture Capital Networks and Investment Performance,” *The Journal of Finance* 52
- Ferreira, G.E., Elkins, M.R., Jones, C. et al, 2022, Reporting characteristics of journal infographics: a cross-sectional study. *BMC Med Educ* 22, 326

The Origin of the Ruling Elite Group: Focused on Marriage Networks of Royal Families from King Taejo to King Hyeonjong of Goryeo

Lee, Hyunju · Mun, Seongmin · Lee, Sangkuk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mechanism by which local forces [*hojok*] at the end of the Silla dynasty could convert to the ruling class of the Goryeo dynasty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royal marriage network. The traditional dichotomous perspective of state and local power was set aside to grasp the continuity of the ruling class from Silla to Goryeo.

To gain this goal, the royal marriage networks from King Taejo of Goryeo to King Hyeonjong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queen's title of each king followed the family name of her mother's and grandmother's [稱姓, *chingseong*]. It was found that the royal marriage network formed during King Taej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growth of local forces into the ruling class, even during the later reigns of Kings Hyejong to Hyeonjong. Specifically, it was observed that royal marriages during this period shifted from exogamous marriages to endogamous marriages, followed by a mixture of both. Through these marriages, the external relationship of power was expanded through exogamous marriages, and the internal relationship of power was strengthened through endogamous marriages. The case of queen's *chingseong* serves as a clear example of this role of the royal marriage.

In summary, the marriage network royal families from the Taejo to Hyeonjong served as a medium connecting the royal family and local forces, a basis for introducing local forces into the ruling class, and a means of expanding and reproducing power. However, it is essential to note that the ruling class, who rose to power through royal marriages, had to implement various measures to preserve their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tatus over generation. In the Goryeo dynasty, the competition to maintain their position was more intense than in previous periods, leading to a division among victorious and

non-successful forces. Further research should focus on the strategies these victorious forces adopted politically, socially, and economically.

Key Words : royal marriage, marriage network, local forces[*hojok*], queen's title followed by the family name of her mother's and grandmother's [稱姓, *chingseong*], endogamous marriage, exogamous marriage, formation of the elite group, power reproduction